

News

대선 끝나니...은행권, 예금금리 올리나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강화 목적으로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 공약...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월 예대금리차 2.24% 시중은행들,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예금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 이제 대선 끝나고 인수위원회 조직 꾸려지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

예금금리 오르고 대출이자 부담 덜까...금감원 '예대마진 대책' 인수위 보고

매일경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예대금리 산정 관련 제도적 개선 사항 파악하고 개선안 마련 후 은행 의견 취합 중... 취합하는 대로 최종안 만들어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금리 산정시 합리성 결여 지표 사용한다는 입장... 모범 기준을 통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할 것

ISS, 금융지주 회장 법적 리스크 견제 못 한 이사진 '무더기 반대'

조선비즈

3월 말 4대 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 나란히 예정된 가운데, ISS에서도 각종 안전에 대한 찬반 의견 제시... 금융지주들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전에 대해 대부분 '반대'의견
사법 리스크 혹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 특히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에 대한 반대표... 오는 24일 신한, 25일 KB,하나,우리금융 정기 총회

토뱅크 '사장님대출' 출시 한달만에 1160억 돌파

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선보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장님 대출' 잔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160억원 돌파...중저신용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도 39.7%에 달해...
전체 고객 중 최저 금리는 3.42%...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전체 고객 3명 당 1명 꼴로 가장 많아... 주로 비대면 개인사업자

KB손보, 자동차 보험료 1.4% 인하... 주요 손보사 전부 할인

조선비즈

KB손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1.4% 인하 결정... 적용 시기는 오는 4월 11일 예정... 다만 영업용 보험료의 경우 아직 검토 중
동 결정으로 주요 손보사 5개 모두 개인용 자동차보험 내려... 코로나19로 차량 운행량 감소 등 손해율 개선된 점 반영... 지난 2020년 1월 3%대 인상 이후 약 2년 만

푸르덴셜생명·KB생명보험 통합...별도운영 실익 없다고 판단

e대한경제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보험, 통합 생명보험사 출범하기로... 사명은 올 하반기 중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예정
금융당국의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의 첫 혜택 예상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두 회사 별도 운영 실익이 없다고 판단

5월부터 IPO때 기관 수요예측 참여 요건 뺄뻑해진다

서울신문

금융투자협회, IPO 수요예측 관련 인수업무규정 개정... 참여를 위해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지나고 투자일임재산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수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최근 불성실 수요예측이 많다는 판단이 주요... 특히 1경 5,203조원 주문액 모은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이 논란... 협회는 향후에도 모니터링 지속한다는 입장

증시 호황에 증권사들 '성과급 잔치'...2000% 준 곳도

동아일보

작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한 증권사들, 성과급 잔치 나서... 한 대형증권사는 월 기본금의 평균 2,000% 성과급 지급했다는 소식도...
중소형 증권사는 기본금의 200%나 연봉의 15% 수준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작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기 때문... 올하는 증시 부진으로 실적 둔화 예상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